

No.20170315-001

제목: 별에 소원을, 그리고 손을.

저자: 아오바 유우

페이지수: 304

장르: 소설

출간일: 2017년 02월 24일



<내용소개>

제29회 소설 스바루 신인상 수상작!

고등학생 작가의 눈으로 바라본 청춘과 꿈

'꿈'은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아니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 바뀐다. 자기의 상황과 적성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된다. 처음 품었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세상은 '이루지 못할지라도 꿈을 가진 인생이 아름답다'고 독려한다. 그러나 꿈을 좇으면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치기 쉽고, 포기하면 실패의 상처가 남는다.

이 소설은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서 시작한다. 유토, 카오루, 리나, 하루키는 우주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공통분모 삼아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왔다. 도서관과 플라네타륨관이 병설된 동네의 작은 과학관은 이들의 단골 모임 장소였다. 관장이 해 주는 우주와 별 이야기를 재미 있게 들으며 앞으로도 이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야기는 시간을 달려 20대 중반이 된 유토와 친구들이 과학관장의 부고를 계기로 재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고교 졸업 후 거의 5~6년 만에 다시 모인 것이다. 유토는 도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동네 관공서에서 일한 지 이제 1년 남짓 되었다. 가업을 잇기로 결정한 하루키도 대학을 졸업하고 본가로 돌아와 있다. 카오루는 이 과학관에서 근무해 왔으며, 리나는 우주의 꿈을 계속 이어가며 대학원에 진학했다. 가까운 곳에 대규모의 시립 과학관이 개장을 하게 된 탓에, 학창시절 추억의 장소였던 이 과학관은 폐쇄될 예정이다. 카오루는 친구들에게 책과 자료 정리를 거들어줄 것을 부탁한다. 하지만 사실 유토는 과학관이 그리 편하지 않다. 고3 시절, 우주에 대한 꿈을 접고 문과를 선택하면서 점점 가지 않게 된 것이다. 당시 여자친구였던 리나를 비롯해 다른 친구들의 관계도 서먹해졌다. 예전에 꿈과 친구들에게서 도망쳤다는 죄책감이 살아난다.

소설은 현 상황과 과거 회상을 오가며 '꿈'을 주제로 전개된다. 꿈을 계속 좇는 사람, 포기한 사람, 아예 다른 길을 걷는 사람 모두 무언가와 타협하고 있다. 과거를 후회하면서도, 꿈을 꾸던 예전의 자신을 부정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살아가려 한다.

작가는 소설 스바루 신인상의 사상 최연소 수상자로서 화제를 모은 고교생, '아오바 유우'다. 아직 문장이 거칠고 시점 전환 같은 테크닉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발전 가능성이 커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밤하늘에 떠오른 별들처럼, 지상에서 각자의 성좌를 갖고 반짝이며 서로를 연결하는 네 명의 친구들. 꿈을 마주하고 선택을 내려야 하는 고교 시절의 감성이 섬세하게 드러난다. 꿈을 가져 봤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청춘 소설이다.

<저자소개>

제 1장: 숙제

제 2장: 새벽

제 3장: 불꽃

제 4장: 철망

제 5장: 별이 가득한 하늘

<저자소개>

아오바 유우

2000년 아이치 현에서 태어났다. 현재 고교 2학년이다.

No.20170315-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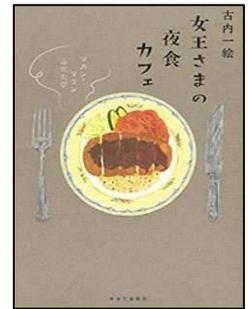
제목: 여왕님의 야식 카페

저자: 후루우치 카즈에

페이지수: 268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11월 16일



<내용소개>

손님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야식 카페 'Makan Malam'이 다시 돌아오다

혼밥·혼술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본에는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과 역시 혼자 찾아오는 손님들 사이의 인간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설정을 가진 작품들이 꽤 있다. 혼자만의 세상에서 잘 지내다가도 누군가에게 고민과 어려움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고 싶은 순간이 있다. 잘 아는 친구나 가족 외에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조언을 줄 수 있을 사람이 필요할 때, 웬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게주인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 소설은 2015년 출간된 《Makan Malam - 23시의 야식 카페》의 속편이다. 어느 뒷골목, <댄스 패션전문점 샤를>이라는 가게가 있다. 낮에는 옷과 액세서리를 팔지만 밤이 되면 솜씨 좋은 주인이 요리를 하는 야식 카페 'Makan Malam'으로 변신한다. 인도네시아어로 Makan은 식사, Malam은 밤을 뜻한다. 생소한 것은 그 뿐 아니다. 우아한 주인 '샤를'은 초 엘리트 출신의 드래그 퀸, 즉 중년의 여장남성이다.

이곳에는 여전히,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1화는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여성의 이야기다. 직장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특히 점심시간만 되면 걱정이 많은데, 우연히 샤를의 가게에 들어갔다가 드래그 퀸과 단골 손님들을 만나게 된다. 전편에서 병으로 쓰러졌던 샤를은 건강을 회복하여 1화 후반에 멋지게 돌아온다. 2화에는 만화가를 꿈꾸는 20대 남자가 등장한다. 계속 만화가의 길을 가야 할지, 포기하고 가족에게 돌아가 가업을 잇는 게 좋을지 방황 중이다. 갑자기 고민을 털어놓은 그에게 샤를이 내놓은 것은 살코기를 튀긴 '타타아게'다. 3화에서는 발달장애 가능성이 있는 아들을 둔 여성이 샤를을 만난다. 아들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녀는 샤를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면 문제를 삼기도 한다. 샤를이 대접하는 음식은 즉석 터키라이스다. 마지막 4화는 진로 때문에 대립하는 부녀의 에피소드다. 샤를의 친구는 딸이 갑자기 문과에서 이과로 바꾸겠다고 고집을 부려 난처해한다. 아버지와 딸이 서로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모습은, 과거 샤를이 아버지와 대립하던 모습과 겹쳐진다.

샤를은 손님들에게 각자 처한 상황에 알맞은 메뉴를 대접하며, 진실된 격려와 조언을 전한다. 특별한 레시피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숨겨져 있다. 본인의 경험과 엮어가면서 듣는 이의 마음에

닿을 수 있게 노력한다. 손님 배와 마음을 채워준 맛있는 요리처럼 따뜻한 이야기들로 꽉 찬 소설이다.

<목차소개>

제1화: 찜 케이크 트라이플

제2화: 장마비가 갠 틈의 타츠타아게

제3화: 긴긴 가을밤의 터키 라이스

제4화: 동지의 7종 우동

<저자소개>

후루우치 카즈에

도쿄 출신. 영화회사를 거쳐 중국어 번역자로 일했다. 제 5 회 포플라사 소설대상 특별상을 받았고, 2001 년 《쾌청 플라잉》으로 데뷔했다. 기타 작품으로 《꽃이 흩날리는 마을》, 《바람의 저편으로 달려 나가다》, 《아픔의 도표》, 《Makan Malam - 23 시의 야식 카페》 등이 있다.

No.20170315-003

제목: 테크놀로지 4.0

저자: 오마에 겐이치

페이지수: 256

장르: IT

출간일: 2017년 02월 24일



<내용소개>

'연결'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찾아올 <테크놀로지 4.0> 시대의 입문서

근대 이후 산업혁명은 어느덧 4차를 맞이했다. 1700년대 말에 영국에서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과 기계화라는 토대를 마련한 '실물경제' 시기였다. 공업과 제철·건설 기술이 발전하고 전기가 발명되며 대량생산 체제를 완성한 2차 산업혁명은 자본·노동·정보의 흐름이 국경을 허문 '보더리스 (Borderless) 경제'였다.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전자회로와 정밀제어에 기반한 정보통신기술의 등장이며, 디지털과 인터넷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대륙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산업혁명의 요소들이 공존하며 경제원리가 혁신을 촉진할 시대가 오고 있다.

일본의 유명한 경제석학 '오마에 겐이치'는 이 타이틀에서 코앞까지 도래한 변혁의 시대를 살펴 보며 이에 대비하고자 한다. 하나의 기술을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의 양대 축은, '네트워크화 된 테크놀로지' 그리고 '스마트폰'이다. 대부분 하나씩 들고 있는 스마트폰은 전화는 물론 인터넷·TV와 라디오·이메일·게임 등의 오락·지갑·건강체크 기능까지 탑재한 만능 물건이다.

본문에서는 먼저 테크놀로지 4.0의 개념을 설명한다. 한 가지 기술을 아는 것보다 전체를 내려다 보는 시점을 가질 것을 조언한다. 또한 테크놀로지 4.0으로 인해 새로운 격차가 생겨날 것임을 예언한다. 2장에서는 스마트폰과 빅데이터 등 IT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및 금융상품을 지칭하는 <FinTech>를 살펴본다. 앞으로는 국가 대신 테크놀로지가 금융세계를 지배할 것이며, 신용을 담보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주체가 바뀔 것이다.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즈니스 변화 양상과 FinTech의 4가지 원리를 살펴본다. 3장의 주제는 시장 규모가 60조엔 (600조원)에 육박하게 될 <위치정보 비즈니스>다. 대상 고객을 '바로 지금 여기'로 특정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양한 업계에서 드론, 어플리케이션 등을 적극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마지막 4장은 사물과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IoT>를 다룬다. 업계의 세력 구조와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미국 GE사의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을 소개하고 주요 사례를 내세우며 고찰해본다.

오마에 겐이치는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인 테크놀로지를 상세히 설명한다. 이점과 상승효과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해보는 그의 글에서, 새 시대를 향한 설렘과 우려가 동시에 느껴진다. 앞으로 도태되지 않고 생존하여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꼭 알아둬야 할 기초 지식이다.

<목차소개>

- 제 1장: <테크놀로지 4.0>이란 무엇인가
- 제 2장: <Fintech>로 신용의 개념이 바뀐다
- 제 3장: <위치정보 비즈니스>가 60조엔 시장이 되는 이유
- 제 4장: <IoT>로 살아남는 기업, 사라져 갈 기업

<저자소개>

오마에 겐이치

1943 년 후쿠오카 현에서 태어났다. 와세다대학 이공학부를 졸업하고 도쿄공업대학 대학원 원자핵공학과로 석사 자격을 취득하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대학원 원자력 공학과로 박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주)히타치제작소 원자력 개발부를 거쳐 1972 년 맥킨지 앤드 컴퍼니에 입사하였다. 이후 디렉터, 일본지사장, 아시아태평양지구회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주)Business Breakthrough 의 대학 학장으로 재직하는 한편 세계의 대기업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국가 차원의 어드바이저로 활약 중이다. 글로벌 시각에서 대담한 발상에 기반한 제언을 활발하게 제안하고 있다.

No.20170315-004

제목: '책을 만든다'는 직업

저자: 이나이즈미 렌

페이지수: 235

장르: 비즈니스, 인문

출간일: 2017년 01월 25일



<내용소개>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과정을 '직업'의 관점에서 따라가보자

우리가 책을 읽게 되는 과정을 떠올려보자. 시작점은 온·오프라인 '서점'이다. 이미 완벽하게 제작이 끝난 하나의 물건으로 놓여져 있다. 하지만 책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보면, 서점은 종착지다. 한때 나만의 책을 만드는 것이 짧게나마 유행처럼 번졌던 시기가 있었다. 비슷한 경험을 해 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책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푹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논픽션 작가로 활동해 온 저자는 책을 만든다는 직업, 책이 완성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책 만드는 과정을 보통 <글쓴이 → 출판사의 편집자 → 서점 직원>으로 뭉뚱그리기 쉬운데, 그 사이사이에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있다.

총 8개의 장은 저마다 다른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1장은 활자(서체), 2장은 제본, 3장은 활판 인쇄, 4장은 교열, 5장은 책의 종이, 6장은 장정, 7장은 번역서, 8장은 아동그림책을 주제로 삼았다. 각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해 온 현직자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업무를 소개한다.

글자들은 모두 모양 자체에 이미지를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책에 사용되는 서체도 종이 및 장정과 조화를 이루며 그 책의 인상을 결정한다. 베테랑을 매번 고민에 잠기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 가업인 제본소를 이어받기로 하면서 제본기술의 본 고장인 서독으로 떠나 7년간 기술을 배우며 느꼈던 것들, 자그마한 인쇄소에서 활자를 조합해 찍어내는 일의 중요성, 제3자의 시선에서 날카롭게 틀린 부분을 짚어내 수정하는 교열 작업,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잘 가공되어야 하는 종이의 변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을 놓으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하는 광범위한 장정, 다른 언어로 쓰인 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며 가교 역할을 하는 번역서,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을 쓰는 어른들이 이야기를 지어낼 때 주의하는 사항 등 흥미로운 내용들이 이어진다.

요즘에는 전자책이 더 편리하다며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기본형태는 여전히 종이 책이며 다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종이 책을 독립된 작품으로 완성해내기 위해 고생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솔직하게 드러나 있어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책은 똑 같아도 그것을 둘러싼 풍경은 소비자, 판매자, 편집자, 작가 등 위치에 따라 각자 다르다. 잘 알지 못했던 '책'의 역사, 곳곳에 숨어 있는 전문가들의 가치관을 알아가는 재미를 줄 것이다. 독서 강국인 일본의 책 시장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정도 궁금해질 것이다.

<목차소개>

- 제 1장: 활자는 책의 목소리다
- 제 2장: 독일에서 배운 제본의 기술
- 제 3장: 다다미 여섯 장 크기의 활판인쇄소
- 제 4장: 교열은 교정쇄(게라)로 말한다
- 제 5장: 모든 책은 종이였다
- 제 6장: 장정은 세심한 부분에 깃들여 있다
- 제 7장: 해외 책의 가교
- 제 8장: 아동 도서를 어른이 쓴다

<저자소개>

이나이즈미 렌

논픽션 작가. 1979년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와세다대학 제2문학부를 졸업했다. 2005년에 《나도 싸움에 출정하지만 - 다케우치 고조의 시와 죽음》으로 오야소이치 상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 《직업표류 - 취직빙하기 세대의 '일하는 방식'》, 《동일본 대지진, 대동맥복구를 향한 싸움》, 《서점의 부흥》, 《도요타 아키오가 사랑한 테스트 드라이버》등이 있다.

No.20170315-005

제목: 99.9%의 인간관계는 쓸모 없다

저자: 야스이 모토야스

페이지수: 254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6년 12월 07일



<내용소개>

'고독력'을 향상시켜 인간관계에서 홀가분해지며 커리어까지 개척해나간다

학연·지연을 중심으로 한 인맥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면서도 그런 인맥이 있어야 좀 더 수월하게 살아가는 사회다. 속으로는 마음에 썩 들지 않아도 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지내거나, 오직 실리적 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이어가려 노력하기도 한다. 그런데 당신의 인간관계의 99.9% 썩이나, 필요가 없다니? 자신만만하고 도전적인 제목의 책을 통해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저마다 취향도 가치관도 다르다. 심지어 그것들은 상황에 따라 우유부단하게 변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저기서도 호감을 얻는 팔방미인을 꿈꾸다가는 이도 저도 아닌 채 밭보이기만 할 가능성이 크다. 저자는 과감하게, 팔방미인이 되려는 발상 자체를 버리라고 한다. 상사에게 좋은 평가를 얻고 동료나 고객에게 칭찬을 받으며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친구들을 보유하는 것이 '나'가 될 수는 없다. 원래부터 인간은 타인에게 미움 받지 않으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다운 존재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싫어할 테면 싫어하라는 당당한 태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99.9%는 버리고 남은 0.1%에만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 어차피 인간관계는 양이 아닌 질로 승부하는 것이다.

주위 의견에 귀를 펼럭대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탓에, 자기 인생인데 정작 자기 자신은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저자는 그런 사람들을 부유층(浮遊層)이라 칭한다. 부유층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진짜 자기 자신을 찾아갈 수 있게 돕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상식의 약점 혹은 맹점을 발견하여 역으로 뺏어나가는 '역 바리케이드 사고'가 핵심이다. 본문은 총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첫 파트에서는 필요 없는 99.9%를 구조조정 해버리고 남은 0.1%의 인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하며 기초 토대를 만든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역 바리케이드 사고 전략을 활용하는 법을 제시한다. 마지막 파트는 '하극상 매뉴얼'에 대한 부분으로, 소위 명문대 출신이 아닌 '비학력 엘리트'로서 살아온 자기의 경험에 기초하여 약점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역전할 수 있는 힌트를 전한다.

자기 인생의 주도권은 본인이 쥐고 있어야 한다. 타인이 정의해 준 행복을 좇아봤자,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본인의 존재와 인생에 대한 가치를 얻을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줄 책이다.

<목차소개>

시작하며: "팔방미인"이 되지 말 것을 추천함

I. 0.1%의 인맥술

제 1장: 고독력을 갈고 닦는 법

제 2장: '역 바리케이드 사고'를 추천함

제 3장: 교제의 기본은 구조조정

제 4장: 진짜 인맥력이란?

II 휘둘리는 것보다 휘둘러라! - 역 바리케이드 커리어 전략

제 5장: <사내출세>보다 <자기 내부의 출세>를 목표로

제 6장: 용병 커리어 이론

제 7장: 왜 자신을 관찰시키는 것을 두려워할까?

III 99.9%의 노력은 틀렸다 - 올바른 하극상 매뉴얼

제 8장: 일류의 노력, 삼류의 노력

제 9장: 사생활에서도 진심으로 응한다

특별칼럼: 순풍이 부는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것 - 토야마 카즈히코 씨와 고민해보다

<저자소개>

야스이 모토야스

주식회사 MCJ의 이사. 1978년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도립 고교에서 중견 대학에 입학하였다. 20대에 상장기업 2곳의 임원이 되었으며, 30세를 약간 넘긴 나이에 전략 컨설팅 경영공동창조기반(IGPI)의 간부 자리에 오른 '비학력 엘리트'로 화제를 모았다. 현재 도요경제온라인에 연재 중인 <비학력 엘리트의 열혈 커리어 상담>을 담당하고 있으며 독자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저서로는 《비학력 엘리트》, 《하극상 이직》, 《IGPI식 비즈니스 플래닝의 리얼 노하우》등이 있다.

No.20170315-006

제목: 쉽게 주저 앉아 버리지 않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

저자: 다카하마 마사노부

페이지수: 288

장르: 육아, 교육

출간일: 2015년 03월 31일



<내용소개>

아이가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게 '역경에 대한 내성'을 길러주는 방법

자전거를 배울 때에는 넘어지는 과정이 필수다. 중심을 잃고 이리저리 흔들려 보아, 균형을 유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몸으로 익히게 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낯섬과 두려움, 갑자기 자전거 앞에 뛰어드는 다른 사람들이나 작은 동물들 같은 '시련'들을 헤쳐나가려면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두려움에 대한 내성을 심어줘야 한다. 그저 피하고 안 하려고 하거나 타인이 대신 해 주는 것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본인에게 닥치는 역경에 금세 좌절하고 쉽게 포기한다.

'역경 지수(AQ; adversity quotient)'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폴 스톨즈가 1990년대에 제시한 개념이다. 사람이나 조직이 역경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목표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지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학습회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를 설립하여 교육 활동을 펼쳐왔으며, 그의 이념을 요약하자면 '아이의 역경지수를 향상시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일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홀로 설 수 있는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유·소년기가 가장 중요하며, 이 시기에는 엄마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부모의 육아는 자녀가 대학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아가는 22세, 한국 나이로 24세 무렵에 끝난다고 볼 수 있다. 11~12세를 기점으로 그 전은 유아기, 이후는 사춘기에 해당한다. 각 특징이 다르므로 부모의 마음가짐과 태도로 달라져야 한다. 유아기에는 자녀를 별 세계의 존재라 여기고 굳이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춘기에는 되도록 터치하지 않는 것을 기본 지침으로 삼는다. 또한 개인이 세상을 인지하는 방법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도피하는 버릇이 들지 않도록 역경을 마주하고 극복하는 훈련을 어릴 때 마쳐야,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대응할 수 있다. 1~2장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한 다음, 3장에서는 유아기에 주로 겪는 역경을 6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부모가 어떻게 접근해 해결해야 하는지 처방전을 제시한다. 이어 4장에서는 사춘기에 닥치는 역경의 유형과 대책을 다뤘다. 마지막 5장에서는, 자녀를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부모가 갖춰야 할 10가지 마음가짐을 소개한다. 정답이란 것이 없는 '육아'에 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저자의 진심이 느껴진다.

부모라면 자기 아이가 평탄하고 쉬운 길만 걸어가기 바랄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아무도 예측

할 수 없으며 누구나 시련 없이 살아갈 수 없다. 괴롭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씩씩하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이 책에 그 힌트가 담겨있다.

<목차소개>

제 1장: 육아의 목표점은 22세

제 2장: 세상은 <인식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제 3장: 아이의 싸움, 따돌림..... 그 때, 부모는 어떻게 접근할까?

제 4장: 사춘기의 역경 극복 체험은 일생의 재산이다

제 5장: 쉽게 주저앉지 않는 아이로 키우기 위한 마음가짐 10가지

<저자소개>

타카하마 마사노부

1959년 구마모토 현에서 태어났으며, 도쿄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학생시절부터 입시학원 등에서 수험생을 지도하면서, 공부와 인간관계 때문에 좌절을 겪고 히키코모리가 되는 문제들이 유아기·아동기 환경과 체험에 기반한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1993년 2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작문><독서><사고력><야외체험>을 중시하는 학습교실 <하나마루 학습회>를 대학원 동기와 함께 설립하였다. 동시에 히키코모리와 등교거부아동의 교육도 시작하였다. 1995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진학학원 <스쿨 FC>를 설립하였다. 산수 올림픽 문제 작성 위원·결승대회의 종합해설원을 맡았고 스카이 퍼펙트 TV의 중학생 수학강좌 강사로 일했다. 또한 사이타마 현의 의사 및 카운슬러로 구성된 자원봉사 조직의 일원으로서, 따돌림·등교거부·가정 내 폭력 문제 해결에 대처하고 있다. 저서는 <<밥 벌어먹고 사는 어른>으로 자라나는 아이의 습관>등이 있다.

No.20170315-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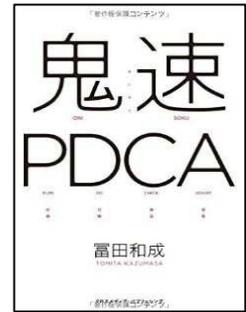
제목: 귀속 (귀신같이 빠른 속도) PDCA

저자: 도미타 카즈마사

페이지수: 272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6년 10월 24일



<내용소개>

귀신같이 빠른 속도로 PDCA 프레임워크를 실행하는 비결

<PLAN(계획) → DO(실행) → CHECK(검증) → ACTION(조치)> 관리기법을 일컫는 'PDCA'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만큼 보편적이고 고전적인 프레임워크다. 그런데 인지도는 높으나 실천도는 낮다. 또,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드물다. 계속하여 관련 서적이 출간되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PDCA를 철저히 숙지하여 귀신같이 빠른 속도로 되풀이하는 것, 그것이 '귀속PDCA'다. 업무상의 불안과 애매함을 없애는 것이 이 책의 목표 및 지향점이다. 저자는 노무라증권에서 지점영업 및 프라이빗 은행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놀라운 기록을 줄지어 세우고 능력을 인정받았다. 10년 이상 실천하며 다듬어 온 '귀속PDCA'는 기본 PDCA를 약간 변형시킨 것이며, 그 비법과 효과를 한편의 책으로 완벽 정리해 공개한다.

본문은 총 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 PDCA 및 귀속PDCA의 개념을 먼저 탄탄히 소개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계획/ 실행/ 검증(확인)/ 조정(조치)를 설명한다.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들을 위해 계획과 실행단계는 각각 초급편과 응용편으로 분리되어 있다. '계획'은 현재 상황의 틈새들을 메우기 위한 과제들을 선정하고 각 성과지표를 달성할 방안을 세우는 것이다. 가설의 정밀도를 높이는 인수분해 과정을 통해, 목표로 가는 로드맵을 논리적으로 그린다. 해결안을 '실행'으로 전환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해내는 행동력이다. 업무량 초과를 방지하고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관리비법을 제시한다. <귀속PDCA>의 핵심은 '검증빈도'다. 적절한 계획과 실행이 선행되어야만 돌아보기 작업이 유효하다. 핵심지표의 달성 비율과 성공/방해 요인을 확인한다. 검증에 실패하는 2가지 패턴을 알려주며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조정·조치 단계다. 앞서 이루어진 검증 결과에 입각하여 조정안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해 다음 사이클로 연결시킨다. 검증과 조정 단계에서 범하기 쉬운 실수를 따로 정리하였다. 마지막 8장은 개인뿐 아니라 팀 단위로 실천하는 귀속PDCA를 소개하여, 각종 시트와 정기 미팅을 통해 실용성 강화를 도모한다.

풍성한 사례와 자료를 적극 제공하며 독자가 바로 따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실용서다. 커리어

상승, 높은 수입, MBA 자격, 토익 고득점 등 무엇을 원하는 응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단체의 규모와도 상관없다. 스킬을 빠르게 습득하여 적시적소에 발휘하는 사원,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귀속 PDCA가 도와줄 것이다.

<목차소개>

- 1장: 전진하는 프레임워크 PDCA
- 2장: 계획초급편 - 틈새에서 이끌어내는 <계획>
- 3장: 계획응용편 - 가설의 정밀도를 높이는 <인수분해>
- 4장: 실행초급편 - 끝까지 확실히 완수해내는 <행동력>
- 5장: 실행응용편 - 귀속(귀신같이 빠른 속도)으로 일하기 위한 <타임 매니지먼트>
- 6장: 검증 - 올바른 계획과 실행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돌아보기>
- 7장: 조정 - 검증결과를 근거한 <개선>과 <신장>
- 8장: 팀으로 실천하는 <귀속 PDCA>

<저자소개>

도미타 카즈마사

주식회사 ZUU 대표이사 겸 CEO. 가나가와 현에서 태어났으며, 히토츠바시대학을 졸업하였다. 대학 재학 중에 IT 분야에서 창업하였으며, 졸업 후에는 노무라증권에서 갖가지 영업기록을 수립하며 최연소로 본사의 VIP 부유층 대상 프라이빗 뱅크 부문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싱가포르 비즈니스 스쿨 유학을 거쳐 태국에서 ASEAN 지역 경영전략을 담당하였다. 2013 년, 주식회사 ZUU 를 설립하고 <누구든지 전력을 다해 꿈에 도전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든다>를 미션으로 삼았다. FinTech 기업으로서 월간 250 만 명을 모은 금융 미디어 <ZUU online>, 주요 Pitch Contest 수상 이력이 있는 투자판단 툴 <ZUU Signals>로 주목 받았다. 이제까지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탈을 포함해 총액 5.5 억 엔의 자금을 조달했다. 과거에 Google 과 Facebook 도 수상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테크놀로지 벤처 어워드 《Red Herring Asia Top 100 Winners》를 수상했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의 FinTech 추진 컨설팅과 디지털 마케팅 지원도 맡고 있으며, 리테일 금융의 IT 화를 추진 중이다. 저서로는 《대부호가 실천 중인 돈의 철학》이 있다.

No.20170315-008

제목: 죽어가는 당신의 곁에서: 말기 암 환자 남편의 마지막을 함께 걸어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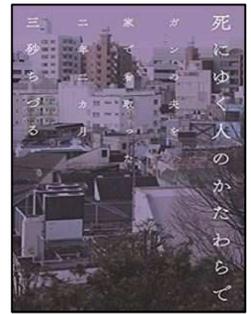
2년 간의 기록

저자: 미사고 치즈루

페이지수: 212

장르: 에세이

출간일: 2017년 03월 09일



<내용소개>

말기 암 환자인 남편을 집에서 간호하고 마지막까지 지켜보았던 경험을 공유한다

평균 수명이 100세 가까이 늘어났지만 각종 질환이 발병하는 시기는 오히려 앞당겨지고 있다. 20~30년 전만 해도 '암'은 걸리면 죽는 병이었다.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달하여 조기 발견하거나 수술만 잘 되면 완치되는 경우가 많다. 암 진단을 받으면 입원하여 의사의 지시대로 치료를 받는 것도, 그래야 생존율이 높아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기 암의 경우는 좀 다르다.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도리가 없다면, 환자와 가족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교수 겸 작가인 저자가 말기 암 환자인 남편을 간호하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을 지켜보는 과정을 담은 에세이다. 남편은 선천적으로 뇌 혈관에 문제가 있었다. 60세가 넘어서 생사의 고비를 한번 맞이하고는 다행히 살아났지만 간질이라는 후유증을 얻었다. 그리고 2013년, 인두암이 경부 림프절까지 전이되었다며 4기 말기 암 선고를 받는다. 엄청난 충격 속에, 남은 생을 병원이 아닌 집에서 보내기로 결정한다. 남편이 원하는 일이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집으로 산파를 불러 아이를 낳고 어른들의 임종을 지켜보던 일이 일반적이던 시대는, 적어도 3세대쯤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현대는 출산과 죽음이 병원의 뒤편으로 분리되어 있기에 중환자를 집에서 돌본다는 것이 무섭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가족들이 힘을 합치고 주위의 도움을 받는다면 못할 것도 없다. 저자도 그렇게 생각하여 실천했고 끝까지 해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집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길 원한다면 자신의 경험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책을 펴내게 된 것이다.

그녀는 예상보다 수월했던 부분과 어려웠던 부분, 추억과 조연을 엮어 진솔하게 고백한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 보다는 눈 앞에 놓인 문제들이었다. 병세가 급 악화되어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되자 가족이 배설물을 대신 처리해주어야 하는 일, 간호비용이 급증하는 경제적 문제, 다양한 민간 요법에 희망을 품었다가 좌절하는 일, 극심한 통증의 발생과 멈춤이 반복되는 것, 연명치료의 존속 여부에 관한 것 등 저자 부부가 직접 체험한 성공과 실패의 기록이다.

배우자의 죽음은 큰 공허함과 상처를 안겨준다. 저자는 남편이 점점 기력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입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실감하지 못했다고 한다. 매 순간 곁에 있으며 마지막을 향해 같이 걸어갔기에, 2015년 남편의 사망 후에는 감사한 마음이 더 크게 남았다는 이야기는 가슴을 울린다. 그녀의 글 속에 녹아있는 진심을 다한 시간의 흔적들이 큰 감동을 선사하는 작품이다.

<목차소개>

- 제 1화: 집에서 간호하기
- 제 2화: 최후의 한나절
- 제 3화: 청천벽력?
- 제 4화: 가장 두려웠던 것
- 제 5화: 돈 문제
- 제 6화: 고통
- 제 7화: 연명치료
- 제 8화: 가족의 장소

<저자소개>

미사고 치즈루

쓰다즈쿠대학 국제관계과 교수, 작가. 1958년 야마구치 현에서 태어났으며, 효고 현 니시노미야 시에서 자랐다. 교토약과대학을 졸업하였다. 런던대학교 Ph.D.(역학) 취득 후 모자보건·국제보건 역학전문가로서 약 15년에 걸쳐 브라질과 영국 등에서 연구를 실시하였다. 2004년 간행한 《마귀 할멈처럼 변하는 여자들 - 여성의 신체성을 되돌리다》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 후 임신·출산·육아·가족·신체를 테마로 한 저서를 다수 발표하였으며, 《여자가 여자가 되는 일》, 《여자들이 무언가 이상하다》등이 있다.

No.20170315-009

제목: 양배추별의 동물도감

저자: tupera tupera

페이지수: 40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6년 11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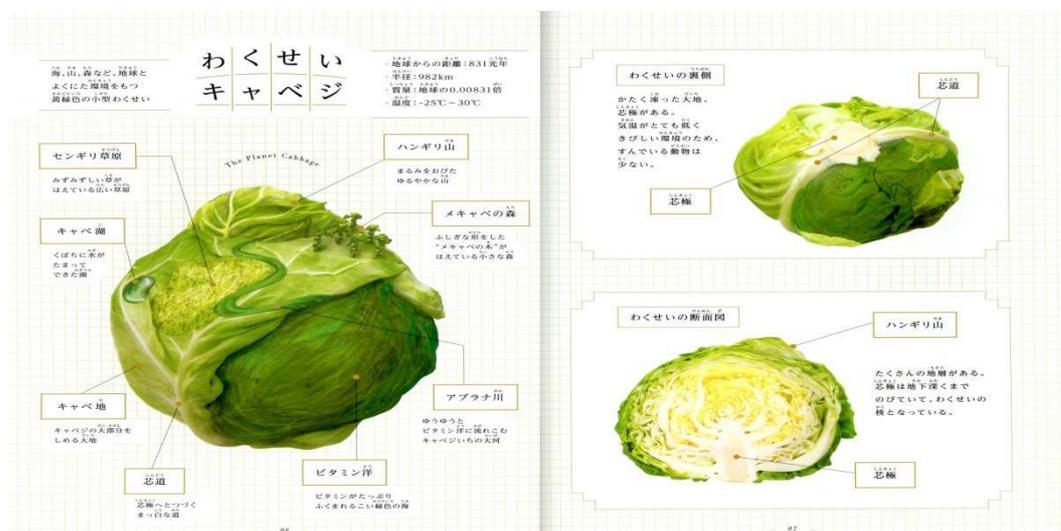


<내용소개>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양배추 별에는 다양한 채소 모양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831광년이나 떨어진 우주에는, 반지름이 982km나 되는 양배추 모양 행성이 있습니다. 그곳은 산과 바다, 숲, 호수와 대지 등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졌으며 황록색입니다. 여러 겹의 잎사귀로 싸인 지층이 있고 아래쪽 중앙에는 딱딱한 심지 모양의 극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행성에는 미스터리한 동물들이 서식 중입니다. 초원에는 토마토 두 개를 붙여놓은 것 같은 '토마통(돼지)', 대지에는 바나나들을 붙여놓은 것 같은 '바나기린'이 있습니다. 숲에는 사과와 닭은 '사과릴라', 산 속에는 껍질을 까지 않은 양파가 생각나는 '양파곰'이 살고 있고 연안에서는 수박 껍질 줄무늬의 등껍질을 달고 있는 '수복이'를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베일에 싸여 있는 양배추 별에는 이 도감에 실린 28가지의 채소동물을 포함, 수수께끼의 존재들이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발랄하고 독창적인 캐릭터로 사랑 받는 작가 tupera tupera가 채소와 동물의 특징과 생김새를 절묘하게 연결시켜 도감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사진과 그림이 섞인 콜라주 느낌이며 3~5세 아동에게 적합한 수준입니다. 채소를 싫어하는 아동들이 많은 연령대인데, 재미 있는 방법으로 채소와 가까워지게 해 줄 그림책입니다.

<본문 이미지>





リングリラ Ringorira



分類 メンバの森
 体高 1.3-1.9m
 体重 80-210kg

ツヤのある赤い体と、大きな胸がとくちょう。
 力は強いが、やさしい性格。「アップー、アップー」となきながらオスが胸をたたくと、森中にあまい香りが広がり、オスがまってくる。



ハクサイ Hakusai



分類 キヤベ地
 体高 3.7-4m
 体重 1.4-2.3t

体は大きくがっしりしている。オスにもメスにも、鼻先にはりばな白い角がある。冬の寒い時期をこのむ。ハクサイの平均寿命は100歳で、ほかの動物にくらべて、とても長生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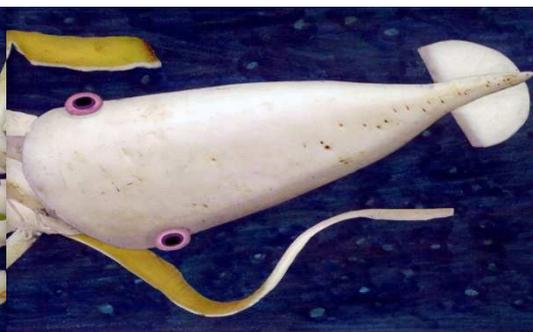


ダイコンイカ Daikonika



分類 ビタミン様の深海
 体高 3-18m
 体重 0.1-1t

白く巨大な体で、腕が8本、触腕が2本ある。深海にすんでいるので、なかなかそのすがたをみることはできない。



できにおそわれると、目から白くて辛辣のあるスミをはいでにげる。



<저자소개>

tupera tupera

카메야마 츠타야, 나카가와 아츠코의 2인 유닛. 그림책과 일러스트레이션을 비롯해 공작, 워크숍, 무대미술,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곰돌이 팬티》, 《모자를 벗으면》, 《뱀이 꿀꺽, 무엇을 삼켰나?》, 《얼굴 노트》, 《악어의 모험》, 《동물 알파벳 서커스》, 《판다 목욕탕》, 작품집 《WONDER WORLD》 등이 있다.

No.20170315-010

제목: 눈을 깜빡이는 동안

저자: 호무라 히로시(글), 사카이 고마코(그림)

페이지수: 32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4년 11월 26일



<내용소개>

당신이 눈을 한 번 깜빡이는 그 잠깐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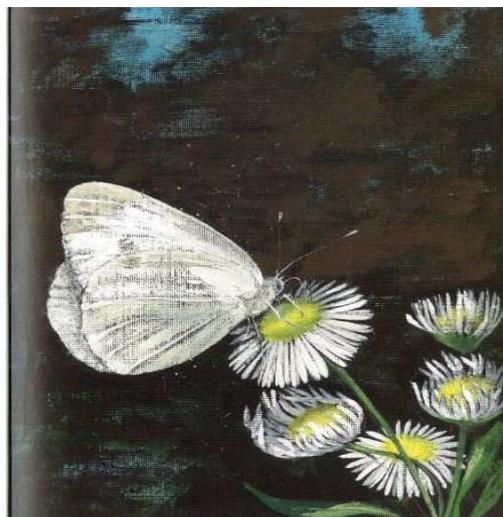
우리는 눈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변화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카메라로 초고속 연속촬영을 해보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차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그림책은 3장 1세트, 총 5가지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靜)→동(動)'의 움직임에 먼저 눈길이 갈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읽어보면, 종이 위에 그린 것은 '시간'입니다. 눈을 한 번 깜빡이는 사이를 나누어 표현한 것입니다. 꽃에 앉아있던 나비가 다리를 웅크렸다 퍼면서 날아가고, 정각을 맞이한 뼈꾸기 시계에서 뼈꾸기가 나오고, 쥐를 발견한 고양이가 놀라더니 덩석 물어버리고, 찻잔 속에 넣은 각설탕이 포르르 사라집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소녀가 등장합니다. 또 잠깐의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며 책장을 넘겨보면, 흰머리 지긋한 할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앞선 패턴들과 시간 간격이 갑자기 달라져, 예상을 벗어나는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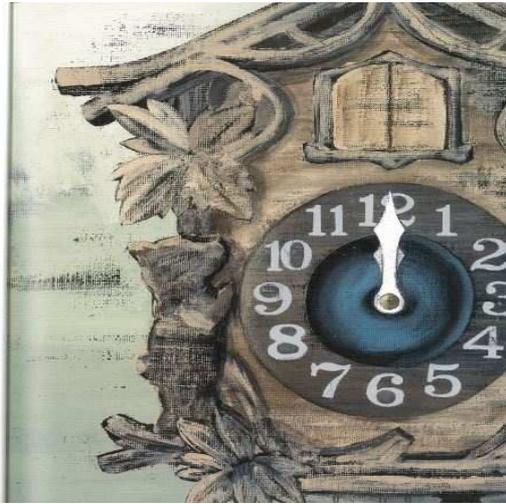
사카이 고마코의 부드럽고 따뜻한 그림체와 호무라 히로시의 함축적인 글이 잘 어우러지는 그림책입니다. 아이들은 '시간'의 존재와 그 소중함을 배울 수 있으며, 어른들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본문 이미지>

しーん



カチッ



「みつあみちゃん」

<저자소개>

호무라 히로시(글)

단카 시인. 1962년 홋카이도에서 태어났으며, 1990년에 가집(歌集) 《신디케이트》로 데뷔하였으며 작가 및 평론가로서도 활동 중이다. 가집 《라인마커스》, 에세이집 《세계음치》, 《현실입문》과 기타 편저와 번역서들이 있다. 《단카의 친구》로 제19회 이토세이 문학상 평론부문, 〈즐거운 하루〉로 제44회 단카연구상을 받았다.

사카이 고마코(그림)

1966년 효고현에서 태어났으며, 도쿄예술대학 미술학부를 졸업했다. 1998년에 그림책 《리코의 집》으로 데뷔하여 《아기여우 리에의 소원》으로 제9회 일본그림책상, 《금요일의 설탕》으로 2005년 브라티슬라바 세계그림책원화전 금판상, 《나는 엄마가 좋아》로 2006년 프랑스의 PITCHOU상 및 네덜란드의 Zilveren Griffel상, 《눈이 그치면》으로 2009년 Zilveren Griffel상을 수상했다.